



영신기계 중부지사

기술력 · 단합된 팀워크로 평판타발기 시장 선도

영신기계(주)(대표이사 이태호)는 평판타발기 전문제조업체다. 지가공포장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영신기계는 지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부문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으며 내수시장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영신기계의 국내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본사가 아니라 중부지사이다. 본사가 대구이기에 지리적, 시간적으로 효율성을 위해 중부지사를 둔 것이 그 시작이지만 현재 중부지사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고 있다.

영신기계는 경기도 고양시에 중부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중부지사장인 한영호 이사는 “과거에는 서울지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 서울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내영업을 책임지다시피 하게 되어 신속한 A/S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끝에 사무실을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전을 계기로 사무소의 명칭을 중부지사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의 전직원이 단 1명의 이탈도 없이 현재의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차별화와 정신적 자산으로 활기찬 부서 만들어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중부지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면에서 어느 회사의 본사와 견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달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장욱 과장은 “중부지사는 A/S기사 전원이 생산현장을 경험한 인원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는 자신이 A/S를 받는 입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고객을 생각하는 A/S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원들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 전직원이 외국어 연수 및 기술연수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부지사의 장점은 이뿐만 아니다. 인원의 변동이 없이 가족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 권위적인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업무능률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로 인해 전체적인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탄탄한 영업조직을 갖고 있지만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영신기계 중부지사의 정신적 자산이다.

인쇄 후가공의 생산성 높이는 제품군 보유

영신기계의 제품군은 인쇄 후가공 과정의 생산성을 높여 주고 있다. 최신 금박기계인 YT-REVOTEC1040FS는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실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이른바 국내 금박기계는 하이델 동판 기계를 개조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영신기계는 금박 시장이 확대되고 고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발에

착수, 늦게나마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금박기계를 내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패키징회사 한국 IP소우드 사에 납품되었고 ‘던힐’ 신제품 담배 금박작업기를 생산하여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담배 생산회사에도 독점 납품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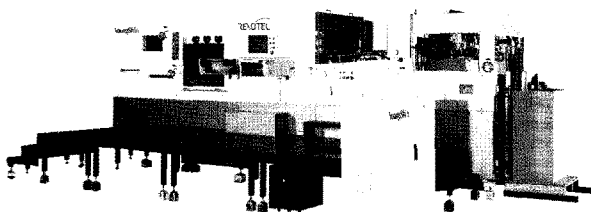
YT-REVOTEC1040FS는 서보 모터에 의한 자동타발압 조정, 다양한 형태의 금형 세팅이 가능한 별집체이스, 정교한 호일 텐션장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중앙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 십자걸이와 리와인딩 박스 설치가 가능하며 그 밖의 금박기계가 가져야 할 기능을 전부 충족하고 있다.

이외에도 YT-REVOTEC106SR는 영국회사와 합작한 제품으로 지난 IPEX2006 출품, 그 기술을 인정받은 바 있다. 상지설제거 장치와 스트리핑, 체이스, 센터라인 시스템 및 상틀 고정장치 적용 또한 보조면판 사용가능하며, 미세 조정 적용으로 작업시간 단축 골판지부터 얇은 시트에 이르기까지 전영역을 아우르고, 급지 장치 또한 크립바 구동장치 강화 및 체인 구동에 오토텐션 장치를 추가 등 강한 내구성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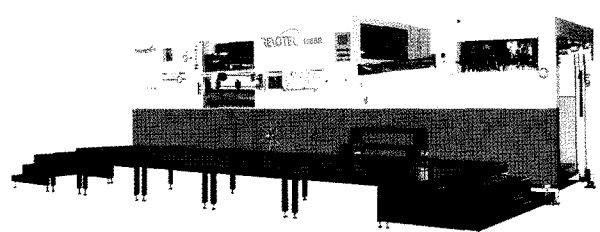
국내영업 책임자는 작지만 탄탄한 조직력 과시

중부지사는 본사가 대구인 영신기계의 입장에서 국내 시장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및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책임진 중요한 부서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겉으로 화려하지만 앓더라도 한발, 한발씩 전진해 나가는 중부지사는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RVT 1040FS 금박기계



RVT 106SR 마닐라 평판 타발기